아름다운 군무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 서정·왈츠의 리듬

목포시향 '신년음악회', 2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맞춰 목포시립무용단 화려한 안무 선사

"목포는 일상 속에 예술이 녹아 있는 '문화 도시'입니다. 따뜻함과 기품을 간직한 이곳에서 올해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시도해 지역 관객과 교감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취임해 목포시향과 호흡을 맞춰 온 김동수 지휘자의 말이다.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는 목포시향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5 신년음악회'다.

공연은 베토벤, 바흐, 차이콥스키, 슈트라우스 2세 등 익숙한 작곡가의 작품부터 발트토이펠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태선이, 정하나를 비롯해 플루티스트 이예린, 김민경 등이 협연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막은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Op. 410'으로 연다. 슈트라우스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며 당시 활약하던 유명 소프라노의 목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2번 Op.50'은 베토벤이 1802년~1803년 사이에 창작해 청년기의 서정이 배어 있다.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발트토이펠(1837~1915)은 프랑스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다. 이번에 선보이는 '여학생 왈츠'는 청춘을 즐기는 여학생의 명랑함을 담았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5번 D장조 BWV1050 1악장'도 울려 퍼진다. 브란덴부르크는 이 곡을 헌정 받은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삼촌으로, 작은 악단을 지녔을 만큼 음악에 관심이 컸다.

총 6개의 협주곡 중에서도 이번에 들려주는 5번은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쳄발로가 곡 전체를 주도하며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등 바흐 음악의 정수가 응축돼 있다.

대미는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가 장식한다.

연말연시 가장 사랑받는 이 작품은 호프만의 동화를 기초 삼아 1892년 작곡한 발레 음악이다. 특히 목포시립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부드러운 왈츠 리듬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군무를 뽐낼 예정이다.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대목에 특별 출연해 안무를 선보일 예정인 '목포시립무용단'.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펼친다. 지난 공연 후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목포시향 제공〉

한편 지휘봉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수가 잡는다.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이탈리아 아카데미아 Musicale Sondriese 등에서 디플롬을 취득했다.

협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태선이는 2019년부터 대전시향 제2악장으로 있다. 프란츠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며 실력을 쌓았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실내악단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에 입단해 주목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정하나도 활시위를 켠다. 이외 플루티스트 이예린, 김민경, 피아니스트 최영미 등이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 낸다.

김동수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무용단의 춤사위를 매개로 '희망'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목포에 예술 향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해 지역 관객에게 '선물같은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무등급 5000원, 티켓링크 예매(만 6세 이상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콘트라베이시스트 정세준(왼쪽부터), 피아니스트 이우림, 기타리스트 이관우, 드러머 설진환 〈이관우 퀄텟 제공〉

우리네 삶에 온전한 '쉼'이 존재할까?

이관우 퀄텟 '앨범 발매 쇼케이스' 오늘 아트스페이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관우 퀄텟'은 작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 주관하는 예술인 육성 프로젝트 '서칭포 재즈맨'에 선정됐다. 퀄텟은 이를 통해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오디오가이 레코즈(음반 유통사)가 협업한 뮤지션 지원사업에 참여, 지난달 정규 1집 'Somewhere For Rest'를 발매했다.

이관우 퀄텟(이하 퀄텟)이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24일 오후 7시 30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앨범 수록곡 전편은 물론, '우리 삶에 온전한 쉼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담은 기성곡 등 총 7곡을 만나는 자리다.

재지한 리듬이 돋보이는 '더 이브'를 비롯해 시티팝 느낌을 선사하는 '스루 더 시티', 경쾌한 멜로디로 귀를 사로잡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울려 퍼진다.

이어지는 '언슬리핑 라이트'는 감미롭고 조용한 선율이 특징이다. 표제곡 '어딘가 쉴 곳'도 잔잔한 울림을 통해 마음의 휴지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밖에 '애프터글로우(잔광)', '더 사이클 오브 라이프'가 레퍼토리에 있다.

팀을 결성한 계기를 묻자 이관우 씨는 "2020년부터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각자 활동하던 또래 연주자들이 23년 말 모여 협연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원 팀'이 됐다"며 "가장 큰 접점은 전국에서 10팀만 선발하는 '서칭포 재즈민 시즌2'에 함께 지원해 선정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컨템포러리와 모던 재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편곡, 연주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쇼케이스를 발판 삼아 다양한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번 앨범은 기타리스트 이관우가 우리 '삶'과 '온전한 쉼'을 반문하며 떠오른 자전적 질문, 고찰을 담았다. 총 세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아우르는 에필로그 트랙도 포함돼 있다. 기타 연주는 이관우가 맡으며 퀄텟 맴버인 피아니스트 이우림, 베이시스트 정세준, 드러머 설진환이 함께할 예정이다.

티켓 2만5000원(학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채로운 아시아 문화예술을 체험하다

ACC, 문화정보원서 44회 강좌… '동아시아 전통회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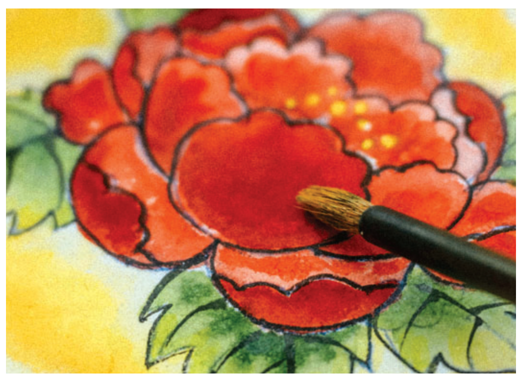
'튀르키예 에브루 아트', '동아시아 전통회화', '아시아를 새기다', '인도네시아 공예-바틱.

올해도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교육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2025아시아예술체험'을 44회 운영한다.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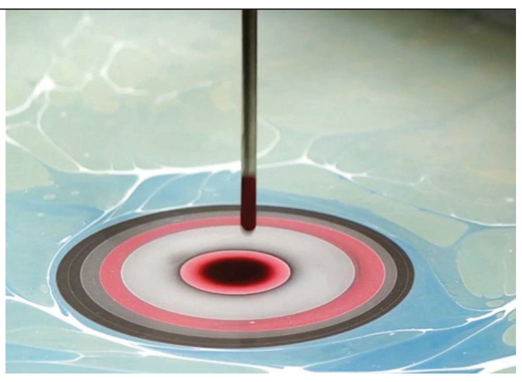
올해 'ACC 아시아 예술체험'(3~10월)은 튀르키예의 '에브루(Ebru) 아트' 강좌를 6회 연다. '에브루'는 오스만 제국 시절 튀르키예의 화가와 서예가가 창안한 마블링 기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튀르키예에서 온 '에브루' 작가가 진행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아시아 전통회화'(3~11월)는 한·중·일 3국의 전통회화를 모티브로 한다. 한국 '민화'의 재료를 비롯해 표현 방법을 알아보며 강의는 한국화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활동한 윤세영 작가가 진행한다.


'동아시아 전통회화'

돌에 인장을 새기는 '아시아를 새기다' 강좌는 올해 20명으로 늘린다. 아시아 문명사에서 문자와 인장의 발달 과정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이다.

인기강좌인 '인도네시아 공예-바틱(Batik)'은 오는 8월 1회 펼쳐진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틱'은 인도네시아 공예로 당대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깃들어 있다. 참가자들이 '바틱'의 전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튀르키예 에브루아트' 〈ACC 제공〉

마지막 강좌는 '아시아 공예-나전칠기(螺鈿漆器)'. 오는 12월에 추가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의 '나전칠기'를 비롯한 재료 등 다양한 분야를 들을 수 있다. 아시아 5개 권역의 공예의 특징 외에도 옻칠공예, 나전칠기의 역사와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접수는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문학 대중화 위해 오월문학 총서 형태로 보급을"

오월문예연구소 워크숍서 제기

5·18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오월문학총서 형태로 작품을 정리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일 오월문예연구소(대표 나종영) 주최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워크숍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에서 이승철 시인이 제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인과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해 5·18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시인은 "오월문학 작품 정리와 보급은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5·18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라며 5·18 이후 시 창작 활동이 본격화된 배경을 언급했다.

5·18 역사소설과 트라우마 문학을 분석한 김형중 평론가(조선대 교수)는 5·18을 다룬 역사소설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탐색했다. 김 교수는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역사소설과 비교했다.

그는 "트라우마와 기억 문학이 5·18 문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과 개인의 상처를 다룬 작품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삼 평론가는 장소와 공동체, 그리고 주체로서의 '절대성'을 극복하는 사례를 소설을 매개로 분석했다. 김 평론가는 "공선옥, 손병현, 한정현의 작품을 텍스트로 '절대'를 넘어설 신선한 징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날 워크숍에서는 5·18 문학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세계화 가능성, 장르적 특성, 대중화 방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5·18 문학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과 장르를 통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오월문예연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